

제2의 임채빈을 꿈꾸며... '2진급 전성시대'

토요 5경주 안창진, 정재원 제치고 V
김민준·김관희는 '삼쌍승 6523.2배'
일요경주서도 김민준, 정하늘 따돌려
“후반기 2진급과 기존강자 점전 뛴것”

요즘 경륜 특선급은 그야말로 2진급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 열린 특선급 경주는 2진급의 활약으로 이번이 속출했다.

토요일 5경주 안창진이 쌍승 130.3배를 터트린 데 이어 마지막 7경주에서는 거물 정종진을 제치고 김민준, 김관희가 각각 1착과 2착을 가져가면서 삼쌍승 6523.2배라는 어마어마한 초고액 배당이 일었다. 일요일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흘러갔다. 4경주 류재민이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쌍승 28.7배가 나오더니 5경주에서는 약체로 평가되던 원신재, 배민규, 왕지현이 나란히 1, 2, 3착을 휩쓸면서 삼쌍승 1377.3배를 터트렸다. 마지막 결승도 수성팀의 김민준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정하늘을 따돌리며 깜짝 우승해 삼쌍승 448.3배라는 고배당이 나왔다.

현재 경륜은 25기 임채빈의 독주체제다. 지난 대상 경주에서 정종진을 누르며 일찌감치 1강 체제를 완성했다. 하지만 '제2의 임채빈'을 꿈꾸며 나서는 2진급의 도전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2의 임채빈'을 꿈꾸는 새로운 유망주들이 부쩍 힘을 내면서 경륜 특선급은 '2진급의 전성시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명스피돔에서 경주를 펼치고 있는 특선급 선수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팀 세대교체 주역들에 주목

세종팀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김관희와 김환운, 임치형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김관희의 약진이 눈에 띈다. 23기로 경륜에 데뷔한 김관희는 데뷔 4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18년 데뷔 때 우수급에서 출발한 김관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와 달리 기존 강자들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한동안 부진했다. 2019년 경주 중 낙차로 인해 큰 부상을 입으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거듭한 끝에 재기에 성공했다. 부상 회복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경주 운영으로 특선급 강자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관희의 물 오른 경기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주가 8월 22일 광명 결승이다. 경주전 예측은 황인혁과 정하늘이 양측을 이루며 우승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관희는 인기 순위 4~5위권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김관희는 이날 주특기인 선행으로 우승해 쌍승 96.0배를 터트렸다.

●김포·수성·금정·동서울팀도 2진급 기대

김관희 외에 세종팀의 23기 김환운도 특유의 지구력을 바탕으로 강자들을 위협하며 착실히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세종팀 최고참인 박종현은 “우리 팀은 수년전부터 선행력을 높이기 위해 긴 거리 위주의 훈련에 집중했는데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팀 내 2진급들의 호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팀에서는 25기 안창진과 22기 김민준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중 주목할 선수는 안창진이다. 안창진은 10월 15일 광명 1경주에서 정정교를 눌렀고 이어 11월 6일 토요 광명 5경주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정재원의 추격을 따돌리며 승리했다.

두 번 모두 초고액 배당을 터트린 안창진은 10월 15일 쌍승 132.5배를 만들어낸 데 이어 11월 6일에도 비슷한 쌍승 130.3배를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잇따라 강자를 제압하며 자신감을 회복한 안창진의 후반기 상승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임채빈과 함께 수성팀을 이끌어갈 기대주”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김포팀 25기 김용규와 수성팀 22기 김민준, 금정팀 22기 김희준, 동서울팀 22기 정해민과 23기 전원규 등도 후반기 활약이 기대되는 2진급들이다.

설경석 최강경륜 편집장은 “후반기는 경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각 팀의 2진급과 기존 강자의 5인방의 점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대주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선배들의 특훈을 받으면서 경기력의 완성도가 높아 언제든 큰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어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2021년 11월 5일(금) • 장소: 광명스피돔 • 주최: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왼쪽에서 3번째)이 광명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자전거와 안전용품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1200만원 상당 자전거·헬멧 전달

국민체육공단, 기부 넘어 '자전거 교실' 진행도
조현재 이사장 “거리두기 지친 아이들 활력 찾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5일 광명스피돔(경륜 본장)에서 광명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자전거와 안전용품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조현재 이사장과 광명시 아동센터 5곳의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센터 아동 및 청소년 60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헬멧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학력격차는 물론 체력격차도 심해진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안전한 자전거 레저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품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전거 안전교실'을 주 1회씩 4주간 진행한다.

이날 전달식에서 조현재 이사장은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와 안전용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스포츠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매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6만 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분부는 올해 광명시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 어르신 재도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조현재 이사장은 이날 고객입장을 시작한 광명스피돔 사업장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고객출입구, 객장, 투표소 등을 둘러보며 방역관리 상황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다시 팬들 환호...활기 찾은 경륜·경정장

경륜 전 영업장 총 2만4000명 찾아
경정도 미사리 본장·지점 입장 허용
“선수들 플레이 직접 보니 너무 좋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오랜만에 경륜과 경정 경기장에 고객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면서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경륜은 5일 광명스피돔(경륜 본장)을 비롯한 15개 전 지점에서 고객 입장이 허용됐다. 이날 경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원 안내에 따라 사전 방역절차를 거쳤다. 출입구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서 지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사전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입장에 약 신청해 받은 QR코드를 확인했다.

이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체크와 손 소독기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T

니 카드(입장료)를 태그한 후에 입장이 가능했다. 입장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온 고객은 직원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스마트 입장신청을 한 후 잔여좌석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입장할 수 있었다. 경륜은 입장 최대 인원이 영업장별 좌석 수를 기준으로 광명 본장 9700명을 비롯해 전 영업장에서 총 2만4000여 명이었다.

영업장에서는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환기, 공조, 밀집예방 안내 등의 방역 관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고함 및 함성 자제, 좌석이동 최소화 등의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입장절차를 알지 못하고 방문하신 일부 고객들과 혼선도 있었으나 영업장 전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정해진 입장절차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랜만의 입장인 만큼 세밀한 곳까지 고

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함 없이 경주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정, 입장 재개 첫 주 고배당 나와

경정도 11월 첫 주부터 미사리 본장과 지점에 입장이 허용됐다. 오랜만에 본장에 입장한 고객들은 멋진 경주를 펼친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레이스를 즐겼다. 이날 경정장을 찾은 팬들은 대부분 모처럼 실제 경주를 보면서 느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경정에 입문한 지 햇수로 5년 정도 된 걸음마 수준의 초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팬은 “코로나로 본장에 들어올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렇게 다시 본장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기 운영일 선수를 좋아한다는 이 팬은 “기복이 심한 선수지만 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강해 출전하는 경기마다 응원을 하는데 마침 오늘 1등을 해 너무 좋다”고 즐



고객입장이 재개된 경륜본장 광명스피돔에서 '오징어게임'의 진행요원 복장을 한 안내원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고함 및 함성 자제를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거워했다.

모처럼 관객들의 환호 속에 열린 40회 경주를 보면 수요일은 탐색전인 듯 안정적인 제배당 흐름이었으나 목요일 경주는 주요 경주와 정면대의 양상을 보였다. 편성에서 입상권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선수들이 적극적인 승부의지를 보여 목요일 1경주부터 쌍승 60.1배를 내더니 11경주에서는 쌍승 103.5배가 나와 앞으로 펼쳐질 경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김재범 기자

골프&

은퇴 앞둔 김하늘 “마지막 홀아웃 웃으면서 하고 싶다”

‘SK텔레콤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15년 프로생활, 후회없이 살았다”

‘스마일 퀸’ 김하늘(33)이 12일 강원 춘천시 라비에벨CC에서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시즌 최종전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1(총상금 10억 원)을 통해 15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한다. 2007년 신인왕 출신으로 2011~2012년 2년 연속 삼금왕을 차지하는 등 KL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거둔 김하늘은 2015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 진출해 통산 6승을 수확했다. 10월 노부타그룹 마스터즈GC 레이디스 대회를 통해 7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한 그는 값진 추억을 간직한 KLPGA 투어에서 고별 무대를 치른다.

빠어난 기량과 함께 언제나 밝은 얼굴로 필드에서 ‘스마일 퀸’으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김하늘은 9일 “15년간 투어에서 뛰었지만 나는 순탄하게 투어



김하늘

아웠다.

10월 일본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고 귀국한 그는 “일본에서 마지막 경기를 뛴 때도 대회장가기 전까지는 사실 은퇴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마치니 눈물이 많이 났다”면서 “일본에서 많이 웃었으니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홀아웃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친구인 (박)인비가 주최한 대회(8월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에서 국내 후배들과 함께 플레이했는데, KLPGA에서 뛰는 후배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보면서 많이 뿌

듯하기도 했고,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통산 14승 중 맨 처음 우승했던 대회(2008년 5월 휘닉스파크 클래식)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하늘이란 골프 선수를 처음 대중에게 알려준 대회였다”고 돌아본 그는 “그동안 가르쳐 주신 코치님, 그리고 스폰서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그래도 가장 감사드릴 분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아버지 김종현 씨, 어머니 고복례 씨)이다. 모두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얼마 전 유튜브(채널명 ‘김하늘 HANEUL’)를 시작했다. 골프 선수 김하늘이 아닌 사람 김하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는 “내가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 그동안 팬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더 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에 미숙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아쉽다”면서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고진영 세계랭킹 1위 내렸다
넬리 코다와 0.004점차 2위

고진영(26)이 2주 만에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넬리 코다(미국)에게 넘겨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고진영은 9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9.0278점으로 9.032점을 기록한 코다에 밀려 2위에 자리했다. 포인트 차이는 단 0.004점. 10월 말 국내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아 4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 자리에 복귀했던 고진영은 2주 만에 다시 ‘넘버 2’로 내려왔다. 지난주 랭킹에서는 고진영이 9.1952점, 코다가 9.1887점으로 0.006점 차로 고진영이 앞섰지만 1주일 사이에 역전됐다.

지난주 둘 모두 대회에 나서지 않았지만 1주일 사이에 랭킹 포인트 상장에 포함되는 대회가 변경되며 근소한 차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인비(33)와 김세영(28)이 그대로 3, 4위 자리를 지켰고,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7위에서 5위로 2계단 상승했다.

김도훈 기자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호응
중학교·학부모·지도자까지 대상 확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훈련 중심의 학교생활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청소년 진로교육’은 학생 선수들에게 경력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로교육은 2016년부터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중학교, 학부모, 지도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운동선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선수로 활동했던 은퇴 선수 출신으로 구성하고 강사양성 워크숍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했다. 청소년 진로교육은 중학교 1시간, 고등학교 2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경력개발의 중요성, 스포츠 분야 관련 자격증 소개 및 준비 방법, 직업 정보 제공 등 총 6강으로 구성된다. 교육운영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으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교육 신청 및 모집에 대한 내용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양식에 따라 대한체육회로 공문을 접수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